

도내 최대 종합예술전시회 팡파르

오늘부터 5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서 '군산아트페어 & 핸드메이드페어' 개최

도내 최대 규모 종합예술전시회인 '군산아트페어&핸드메이드페어(Art Gusan 17)'가 오는 3일을 시작으로 5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GSCO가 주관하는 '군산아트페어&핸드메이드페어'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아 한중청년교류전, 어린이미술대회, 어린이 공예 체험전, 아름다운가게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군산아트페어'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 미디어 등 개인작가 200여명과 그레이스 갤러리, 아리수 갤러리, 갤러리 아라, 갤러리 위즈아츠, 아트타운 갤러리, 갤러리 딜라이트, 서경 갤러리 등 90개 업체의 88개 부스가 설치되며, '군산아트페어'와 함께 '핸드메이드페어'가 동시에 개최되어 공예, 프랑수아즈 캔들 등 수공예품부터 마카롱, 앙금플러쉬 등 수제디저트까지 다채로운 전시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체험 중심의 63개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명 미디어아티스트 이아남·신도원·탁영환 등 5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미디어 산책展과 정인봉 감독·전주대학교 한승룡 교수 등 4인의 예술·독립극장인 '아트시



도내 최대 규모 종합예술전시회인 '군산아트페어&핸드메이드페어(Art Gusan 17)'가 오는 3일을 시작으로 5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다.

네미展' 등의 작품전이 마련되어 보는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초대작가 작품 중 30만 원 내 소품 80여점을 한 자리에 모은 '김대리 갤러리'에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문용묵 시 지역경제과장은 "지역에

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미술품과 핸드메이드 공예품, 체험전, 예술행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폭 유일·최대 규모의 종합 예술전시행사로서 전국의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문화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

개최를 계기로 열악한 지역 예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물론 외부인의 관내 유입을 통한 직접적인 소비 증진과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교통약자 질 높은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익산시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통약자에게 질 높은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월에 장애인콜택시 콜센터를 목천동에 소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현 장애인콜센터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구)남동2동사무소 건물 1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며 왔으나 인근 협소한 골목에 수많은 차량들이 주차차 되어 장애인콜택시가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현재 차고지로 이용되는 곳은 개인 사유지로 무상임대료로 사용 중이었으나 장애인콜택시 전용 주차장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새로운 대체 차고지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고 있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익산시 지회(회장 최병철)는 이전 과정에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불만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과 차고지를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변변한 휴게장소 없이 고생한 콜택시 운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며 "새 보급차리로 옮긴 만큼 새로운 각오로 교통약자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19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월평균 85건의 예약민원을 처리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2018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군산시 중앙사거리에서 해신동사무소까지의 중앙로 거리가 특색 있는 간판으로 정비되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된다.

군산시는 전북도에서 주관한 '2018 옥외광고물 간판개선 사업' 공모에 '중앙로(중앙사거리~해신동사무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2018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된 중앙로의 약 400m 구간은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간여행마을에 위치한 거리로 음식점 및 상가들의 노후화된 간판들이 난립해 있

는 구간이다. 이에 시에서는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중앙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군산의 특색과 건물, 업소별 특성을 살려 미적으로 아름답고 시각적으로도 돋보이는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간판을 일정한 높낮이로 맞추고 보행 안전 및 거리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나아가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기자

한국폴리텍 익산 주얼리디자인과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금상 등 수상자 다수 배출

주얼리디자인과의 심소연 '우주의 신비, 익산' 금상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 주얼리디자인과 학생들이 제13회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고 특선 및 입선작을 배출했다.

제13회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이자 보석도시인 익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보석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보석박물관이 주관해 개최됐다.

이 공모전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주얼리디자인과의 심소연(41세, 여) 학생이 '우주의 신비, 익산'이라는 작품으로 금상을 정현진(32세, 여) 학생이 '보석을 입다'라는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

했다.

또한 박은민(20, 여) 학생이 '익산의 美가 퍼진다' 작품으로 특선에, 유재은(29세, 여) 학생이 '꽃에 피어난 그윽한 국화향' 작품으로 입선에 올랐다.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달 31일 보석박물관에서 진행됐다. 금상을 수상한 심소연 학생은 "학교에서 습득한 렌더링 등 보석 관련 기술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은 "우리 재학생들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언제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2년제 학위과정과 1년제 전문기술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주얼리디자인과는 1년제 전문기술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기술과정 원서접수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도시가스 요금 평균 9.3% 인하

익산시(시장 정현윤)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올해 10월에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를 완료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인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2012년 말 5.5조원 누적되었다.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으며 2017년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익산시 도시가스는 주택용 8.7%, 영업용 8.8%, 산업용 10.2% 인하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미주 자매도시 어린이 그림전시회' 개최

군산시 미주지역 자매도시인 미국의 타코마시와 윈저시 어린이들의 그림이 군산을 찾았다.

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열흘간 군산예술의전당 제2·3전시실 로비에서 '미주지역 자매도시 어린이 그림전시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타코마시와 윈저시의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 60점과 지난해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입선작 30점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에는 캐나다 윈저시에서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 공식행사의 일환으로 '군산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여 윈저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한민국의 자매도시인 군



산시를 진속하게 알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그림전시회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림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주지역 어린이 문화교류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